

## 現物市場의 機能이 擴大되고 있다

金 乾 治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 I. 머리말

石油現物市場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원유시장이 공급과잉현상을 나타내면서 소비국들은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원유도입보다는 공식가격보다 저렴한 현물시장으로 부터의 도입을 選好하고 있다.

현물시장은 그 동안 경기변동과 계절적인 수요변화에 따른 原油수급의 차질 및 유종간 제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보조시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단기적인 수급조정 및 이익확보측면이 증시되어 왔다.

그러나 제 2차 石油危機때 원유의 절대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원유확보의 보조창구로서 현물시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82년 이후 원유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자 현물시장은 產油國의 잉여물량 투매창구역할을 담당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적인 석유거래상이나 상당량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소비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물시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거래규모는 세계 총 거래량의 40~5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II. 現物市場의 正體

스파트마켓(現物市場)란 오늘날의 속칭으로 석유업계의 원래 명칭은 마진날 마켓(Marginal Market), 글자 그대로 우수리시장이란 뜻이다.

현물시장이란 이상혹한이나 일시적 수급불균형, 또는 갑자기 특정유종의 수요가 생겼을 때, 이를 사다 메우기 위한 것으로 로테르담, 런던, 뉴욕등이 그 전통적 시장이며, 특히 로테르담시장은 현물시장의 代名詞가 되고 있다. 유럽 수입원유의 대부분이 이 한곳에 몰려드는데다 세계최대의 정유시설과 저유시설이 공존하고 있어 물량확보가 우선 쉽다.

현재 네델란드의 국내정제능력은 약 1백80만B/D로 석유제품의 국내소비와 수출의 비율은 각각 45%, 55%로서 거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輕油가 약 40%, 重油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로테르담을 통해 西獨(약 50%), 벨기에, 룩셈부르크, 英國등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 78년 여름까지만 해도 로테르담 현물시장은 별 볼일이 없었다. 원유와 그 제품은 세계적으로 공급이 남아 돌았고,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려는 이가 없어 로테르담가격은 공식가격을 밀돌았다. 이 러던 시장이 지난 79년의 제 2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하룻밤새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복마전으로 둔갑했다.

현재 로테르담 현물시장에는 약 5백개의 크고 작은 석유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가 없고, 회사라야 보통 사람 둘에 비서 한명, 텔렉스와 전화가 고작이며, 거래는 보통 전화나 텔렉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대개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메이저(國際石油資本)로 석유수급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로테르담 현물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는 독립계 석유업자로 그 자체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원유나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세째는 개인고객으로 그 자체수요를 위해 원유나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네째는 브로커로 커미션을 받고 거래를 알선하며, 또 고객들에게 석유시장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섯째는 트레이더로 브로커와는 달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매매 과정을 통해 차익을 거두고 있다.

로테르담 현물시장의 가격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형성되며, 특별한 정치적인 이변이 없는 한,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또 거래는 단기거래 형태가 특색으로 그 형태는 Cargo와 Barge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Cargo 무역은 大洋탱커에 의한 수출입과 같은 국제규모로 대개 거래단위는 2만톤 내외가 보통이다. 물량은 보통 정유공장이나 산업체등 수요처에 직접 인도하며, 트



로테르담 現物市場의 거대한 정유공장과 저유시설

레이더들은 보통 Cargo단위로 구입하여 Barge로 나누어 고객들에게 팔고 있다. 주로 트레이더와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Barge 무역은 대개 1천 ~ 1천 5백톤의 소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테르담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라인강을 따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西獨 등으로 물량이 운송, 공급된다.

현재 로테르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규모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는 없다. 지난 79년 중반부터 80년 중반까지 1년간 거래된 양이 약 4천만톤 정도가 되리라는 추정이 고작이다. 로테르담시장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발틱해나 런던의 금속거래소와 같은 특수시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시장이 없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로테르담이 석유현물거래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트레이더나 브로커들은 대개 뉴욕이나 런던, 파리, 스톡홀름, 싱가포르등지에 위치하고 있어 전화나 텔렉스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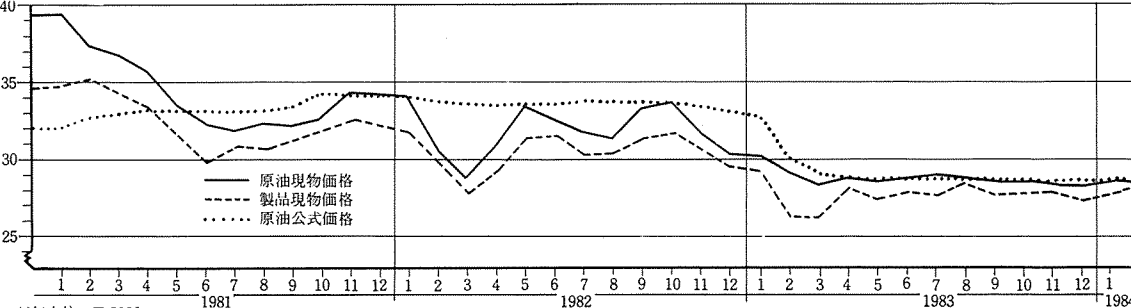
Ⅲ. 現物市場기능 확대의 배경

지난 79년 제 2차 석유위기때만 해도 원유의 현물가격은 공식가격을 웃돌았다. 원유가격형성의 기본이 되는 현물시장의 가격이 공식가격수준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산유국과 장기공급계약을 選好하던 소비국들은 당시 현물시장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악덕거래업자들의 조작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계속 상승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유국정부들은 표면적으로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입각해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공식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공식가격수준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82년 이후 원유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자 장기공급계약형태의 석유거래는 인기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현물시장이 산유국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메이저들이 현물시

原油(아라비안 라이트) 現物價格추이 (單位: \$/B)



<資料> PIW

장에 개입하여 석유가격을 소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현재 많은 정유회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원유정제를 감축하는 대신 제품도입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유회사들은 커피, 銅 등 일반상품의 거래형태와 마찬가지로 원유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BP는 정유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역지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터 윌터즈 BP회장은 82년도 연차보고서에서 『침체된 석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유의 구매와 제품의 판매 등 새로운 환경에 신속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회사들의 원유도입형태가

장기계약에서 단기현물시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그 거래규모는 약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78년까지만 해도 국내도입원유의 全량을 메이저(國際石油資本)에 의존하였으나, 79년의 제 2차 석유위기 이후부터 장기계약 원유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82년 이후에는 수급보다 低價의 원유도입에 따른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도입물량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전체 원유도입량중 현물도입량의 비중은 79년 1.6%에서 83년에는 19.6%로 증가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즉 지난

## 83年 主要現物市場的 原油價格推移

(單位：\$/B)

US GULF COA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Arab Light-34	27.77	26.94	25.75	28.69	28.33	29.00	29.22	28.96	28.79	28.07	27.81	26.09
Arab Heavy-27	26.28	25.43	24.47	27.07	26.86	27.28	27.82	27.46	27.58	26.98	26.64	25.14
Iran Light-34	27.52	26.69	25.54	28.35	28.01	28.66	28.93	28.65	28.59	27.89	27.62	25.93
Nigeria Light-37	29.78	28.84	27.39	30.56	30.27	31.13	31.18	30.94	30.53	29.69	29.52	27.92
Libya Es Sider-37	29.05	28.44	27.09	29.90	29.69	30.30	30.16	30.26	30.02	28.97	29.20	27.42
Ecuador Oriente-30	28.23	27.41	26.21	29.07	28.76	29.48	29.83	29.80	29.63	28.88	28.71	27.10
Venezuela Tia Juana-24	26.69	25.86	24.93	27.46	27.32	27.74	28.45	28.36	28.44	27.79	27.55	26.21
UK Brent-37	29.66	28.82	27.46	30.36	30.30	30.81	30.80	30.73	30.41	29.42	29.46	27.93
UK Ninian-35.8	29.16	28.35	27.09	29.92	29.78	30.35	30.28	30.37	30.14	29.11	29.24	27.60
Norway Ekofisk-44	30.10	29.24	27.80	30.68	30.61	31.12	31.10	30.97	30.73	29.74	29.75	28.21
W.Texas Intermediate-40												
Midland, Texas	30.26	29.35	27.96	31.06	30.79	31.50	31.51	31.63	31.25	30.25	30.09	28.59
Cushing, Okla.	30.06	29.15	27.76	30.86	30.59	31.30	31.31	31.43	31.05	30.05	29.89	28.39
West Texas Sour-33	28.70	27.81	26.57	29.63	29.30	29.75	30.12	30.21	30.04	29.13	28.95	27.41
Alaska N.Slope-27(Gulf)	28.24	27.24	26.13	28.94	28.68	28.96	29.60	29.63	29.72	28.90	28.67	27.27
Mexico Isthmus-34	28.95	28.04	26.79	29.74	29.40	29.95	30.33	30.36	30.25	29.41	29.22	27.61
Mexico Maya-22	26.04	25.11	24.31	26.10	26.07	26.20	27.17	27.11	27.99	27.37	27.09	25.96
<b>CARIBBEAN</b>												
Arab Light-34	28.02	25.52	25.01	27.41	27.15	27.19	27.75	27.99	28.02	27.27	27.33	26.40
Arab Heavy-27	25.29	23.29	23.17	25.08	25.11	25.05	25.70	25.98	26.19	25.20	25.61	24.94
Iran Light-34	27.79	25.41	24.90	27.29	27.07	27.10	27.66	27.89	27.96	27.38	27.25	26.27
Kuwait-31	26.54	24.27	23.98	26.17	26.05	26.05	26.65	26.89	26.95	26.01	26.32	25.55
UAE Murban-39	28.98	26.51	25.80	28.40	28.06	28.20	28.75	28.90	28.81	28.27	28.08	27.01
Nigeria Light-37	31.43	28.44	27.22	29.82	29.67	30.03	30.52	30.60	30.42	29.40	29.54	28.82
Venezuela Tia Juana-24	25.61	23.82	23.60	25.44	25.57	25.51	26.34	26.84	27.26	26.89	26.68	25.86
<b>ARABIAN/PERSIAN GULF</b>												
Arab Light-34	29.86	28.38	27.41	27.84	27.84	27.41	27.88	28.45	28.88	28.62	28.24	26.89
Arab Heavy-27	27.09	26.06	25.38	26.36	26.28	25.83	26.09	26.84	27.39	27.36	27.00	25.37
Iran Light-34	29.56	28.11	27.17	27.73	27.73	27.29	27.74	28.34	28.70	28.46	28.08	26.70
Kuwait-31	28.41	27.13	26.31	27.09	27.05	26.61	26.97	27.64	28.05	27.91	27.53	26.04
<b>SINGAPORE</b>												
Arab Light-34	30.51	28.89	27.06	27.76	28.19	27.66	28.16	28.76	29.56	29.22	28.14	26.31
Arab Heavy-27	27.49	26.60	25.50	26.46	26.66	26.31	26.58	27.36	27.95	27.90	27.00	24.98
Iran Light-34	30.36	28.77	26.85	27.53	27.99	27.49	28.12	28.74	29.45	29.01	27.97	26.28
Kuwait-31	28.84	27.60	26.21	27.04	27.35	26.90	27.24	27.90	28.64	28.46	27.46	25.51
UAE Murban-39	31.78	29.82	27.61	28.08	28.65	28.07	28.80	29.31	30.25	29.67	28.52	26.90
Nigeria Light-37	32.66	30.45	27.63	28.09	28.82	28.25	29.39	29.89	30.52	29.56	28.44	27.25
Indonesia Minas-34	31.35	29.66	26.42	26.55	27.33	27.03	28.64	29.74	29.96	28.70	28.01	27.35
<b>ROTTERDAM</b>												
Arab Light-34	29.83	26.64	26.70	28.93	28.24	28.82	28.90	29.74	28.64	28.54	28.71	28.14
Arab Medium-31	28.64	25.76	25.74	27.79	27.18	27.52	27.75	28.62	27.78	27.75	27.88	27.42
Arab Heavy-27	26.54	23.99	24.37	26.08	25.57	25.57	25.99	26.61	25.75	25.85	25.86	25.41
Iran Light-34	29.82	26.63	26.72	28.77	28.13	28.74	28.83	29.63	28.72	28.60	28.76	28.18
Kuwait-31	28.50	25.66	25.87	27.53	26.96	27.28	27.52	28.37	27.71	27.68	27.81	27.35
Dubai Fateh-32	30.02	26.79	26.86	28.84	28.16	28.76	28.84	29.67	28.85	28.73	28.90	28.34
UAE Murban-39	30.51	26.93	26.89	29.01	28.25	29.19	28.96	29.48	28.66	28.52	28.66	27.85
Nigeria Light-37	32.69	28.86	28.70	31.04	30.22	31.24	31.06	31.84	30.92	30.67	30.91	30.11
Nigeria Forcados-31	33.00	29.06	28.91	31.11	30.25	31.24	31.13	31.98	31.20	30.96	31.21	30.57
Algeria Saharan-44	31.14	27.55	27.45	29.84	29.14	30.15	29.88	30.67	29.60	29.35	29.56	28.73
UK Brent-37	31.15	27.60	27.58	29.62	29.05	29.95	29.90	30.52	29.74	29.49	29.74	28.98
Norway Ekofisk-44	31.00	27.49	27.43	29.74	29.15	30.13	29.79	30.56	29.55	29.28	29.52	28.59
Norway Statfjord-39	31.54	27.91	27.83	30.00	29.33	30.29	30.15	30.82	29.97	29.71	29.97	29.14
<b>ITALY</b>												
Arab Light-34	28.46	25.66	25.61	27.18	26.69	27.01	26.81	27.55	26.77	27.04	27.01	26.47
Arab Heavy-27	25.79	23.66	24.00	25.34	24.97	24.80	24.89	25.72	24.90	25.34	25.27	24.80
Iran Light-34	28.22	25.43	25.39	27.03	26.64	27.01	26.81	27.48	26.65	26.91	26.85	26.27
Kuwait-31	27.02	24.57	24.73	26.22	25.77	25.84	25.79	26.58	25.74	26.09	26.04	25.51
UAE Murban-39	29.23	26.20	26.02	27.83	27.36	27.92	27.62	28.26	27.38	27.56	27.52	26.89
Nigeria Light-37	30.51	27.21	26.81	28.81	28.52	29.37	29.05	29.57	28.78	28.77	28.75	28.09
Algeria Saharan-44	30.36	27.12	26.72	28.68	28.42	29.23	28.94	29.47	28.67	28.67	28.71	28.00

〈資料〉 PIW

우리나라의 現物市場 原油도입 推移

(單位：千배럴)

	全体原油도입량	現物市場도입량	現物市場비중(%)
1978	166,607	—	—
1979	185,512	2,941	1.6
1980	182,861	5,640	3.1
1981	182,816	4,704	2.6
1982	178,369	14,070	7.9
1983	192,969	37,782	19.6
1984	51,685	16,552	32.0
1/4분기			

〈資料〉 大韓石油協會

1/4분기중 우리 나라의 현물원유도입물량은 총 도입물량 5천 1백68만 배럴의 32%인 1천 6백55만 2천배럴에 이르고 있다.

현물시장의 활용은 원유비절감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83년의 경우, 임가공 수출용을 제외한 내수용 원유도입량은 1억 7천 9백30만배럴로 82년 대비 90만배럴이 늘었으나, 원유도입 대금은 53억 8천만달러로 전년보다 7억달러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 해 국제수지 경상적자는 16억 1천 9백만달러로 전년보다 10억 3천만달러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개선은 원유도입비용이 7억 달러나 절감된데 결정적으로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유도입비용이 이처럼 절감된 것은 작년 3월의 국제원유가 인하가 주요 요인이지만, 또 한편으로 정유회사들의 현물시장을 통한 값싼 원유도입으로 원유도입 단가가 82년 배럴당 평균 34.1달러(운임포함가격)에서 83년에 30달러로 낮아진데 기인된 것이다.

**IV. 向後展望과 對應**

최근 정유산업은 수요감퇴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와 石油代替에너지의 시장침투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석유소비국들은 석유도입을 무역지향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시장으로 부터의 석유제품 수입량을 늘리고 있어 정유산업의 설비파잉을 초래하고, 경영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수입초과 현상은 美國등 전통적인 석유제품 수입국들의 수요부진으로 수입량이 둔

화됨에 따라 현물시장의 수출전용 정유공장이 가동을 회복을 위하여 실발생비용 이하의 투매를 성행하고 있으며, 산유국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세계적인 석유수요의 침체와 정제시설의 가동률이 제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며, 더우기 장기적으로는 산유국의 수출전용 정유공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유종간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현물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물시장으로부터의 도입증가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가동을 개시, 석유제품을 소비국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정유산업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를 비롯한 中東산유국들이 본격적으로 석유제품수출을 하게 될 경우 잠재시장으로 꼽히는 동등지역이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87년까지 中東산유국들이 수출할 제품량은 하루 1백만배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세계 제 3위의 정제센터인 싱가포르가 될 것 같다.

美國의 East-West Institute는 中東 석유제품의 약 60%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동등지역에 추가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85년에는 사우디와 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이 하루 32만배럴씩 동양권에 추가 수출되고, 오는 86년에 가면 이 양은 44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우디의 페트로민이 자국의 3개 수출용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하루 17만 5천 배럴씩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3년 싱가포르에서 정제된 中東產 원유는 전체원유량중 48%로 81년의 68%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中東의 석유제품수출이 확대되어가고, 極東의 정유산업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유업체는 내년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현재 80만B/D규모의 싱가포르 정제능력은 절반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호르무즈해협봉쇄와 같은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原油現物價의 상승으로 현물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나, 돌발사태가 없이 수급이 안정되고 現物價가 공식가격을 밑도는 한, 현물시장은 계속 選好될 것으로 보인다. \*